

베트남 내 디프테리아 확산 중, 예방 당부

주베트남대사관

1 베트남 내 확산 현황

- 디프테리아는 호흡기 접촉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, 디프테리아균의 독소에 의해 인후통과 열로 증상이 시작되며,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기도 합니다.
 - ※ WHO에 따르면 디프테리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10%에 이릅니다.
- 베트남 보건당국에 따르면, 2020년 초부터 7월 7일까지 디프테리아 감염 사례는 지난해 보다 3배나 많은 65명이고, 그 중 아동 3명이 사망하였고, 발병 지역이 많고 모든 연령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.
- 발병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은 닥농·꽌똌·자라이·닥락성 등 중남부 고원지대로 알려져 있으며, 베트남 당국은 디프테리아 환자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, 마을을 봉쇄하였습니다.

2 우리 국민 참고 사항

- 베트남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및 한국→베트남으로 입국을 계획 중인 경우, 필히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.
 -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디프테리아 백신을 3회 기초 접종하고, 생후 15~18개월, 만 4~6세에 추가 접종
 - 성인 중 디프테리아 예방접종력이 없는 경우에도 예방접종 필요
 - ※ 상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cdc.go.kr) 참조바람.
- 디프테리아 감염 시(환자 및 가족 등은) 아래와 같이 대처바랍니다.
 - 환자를 즉시 격리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
 - 증상 발현 시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
 - 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반드시 소독
 - 올바른 손 씻기,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. 끝.